



금감원,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최 원 선임연구원

■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하여 현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에 최근 변경된 보험 계리제도¹⁾를 반영하고 검사지원 기능을 추가하는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기로 함.

- 개선작업은 2012년 12월부터 총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보험회사의 FY2012 결산준비금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적으로 활용될 것임.
- 금감원은 이번 평가시스템 개선으로 책임준비금에 대한 세부 검증기능 강화를 통한 검사업무의 표준화 및 효율성 제고와 책임준비금 적립에 대한 상시점검 체계 확립을 통한 보험계약자 권익 보호 강화를 기대하고 있음.

■ 주요 평가시스템 개선방향에는 집적자료 세분화 및 검증기법 고도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²⁾ 검증기능 추가, 자동차보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 확대, 현장검사 지원기능 강화 등이 제시됨.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통계자료를 세분화하여 보험 상품군을 기존 6개 군에서 12개 군으로 확대하고, 보험 상품별 세부 분석기능과 보험계약 건별 검증을 추가 개발하여 검증기법을 고도화할 것임.
-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시 미래 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가정을 위해 반영한 각종 수치들을 회사별로 비교하고, 결과물 및 민감도 분석을 통하여 적정 적립여부를 판단할 계획임.
- 자동차보험의 지급준비금 검증대상을 기존 대인사고에서 대물사고, 자기차량손해 등 모든 보장으로 확대하고, 장래손해조사비에 대한 검증기능을 추가할 예정임.
- 보험회사가 제출하는 보험계약 건별 사전 검사자료를 자동으로 분석·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할 계획임.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평가시스템 개선 추진, 금감원, 12/13)

1) 국제회계기준(IFRS) 1단계 시행(FY2011)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제도 신설 등이 있음.

2) 결산시점의 이자율, 위험률 등을 기준으로 미래의 현금흐름을 추정한 후, 기존에 적립한 책임준비금이 미래의 부채를 충당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하고,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족 금액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